

이승만과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차 상 철**

I. 머리말

1945년 8월 15일. 태평양전쟁이 종식됨과 동시에 40년에 걸친 일본제국주주의 기나긴 식민통치의 굴레에서 마침내 한국민도 해방되었다. 그러나 ‘도둑같이 뜻 밖에’ 찾아온 해방의 감격과 흥분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한국민은 38도선을 경계로 한반도의 남북한 지역에 미군과 소련의 점령군이 주둔하는 슬픈 현실을 지켜 보아야만 했다. 곧이어 군정(軍政)이 시작되었고, 3년 동안 지속되었다. 술한 우여곡절 끝에 1948년 8월 15일 신생독립국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수립되었다.

2008년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지 6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다. 우남(雲南) 이승만(李承晩, 1875-1965)은 분명 한국현대사의 ‘거목’이다. 모든 나무가 거목이 될 수 없듯이, 누구나 원한다고 해서 ‘역사적’ 인물이 될 수는 없다. 비범한 지도자는 일생을 바쳐도 좋을 만한 뚜렷한 목표와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투철한 신념과 사명감을 지니고, 닥쳐올 미래의 주역으로서 손색이 없도록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준비시키고, 관리해 온 인물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승만도 그러한 인물이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승만을 빼놓고, 건국과 보국(保國) 그리고 부국(富國)을 위한 파란만장했던 한국현대사의 전개과정을 제대로 해명할 수 없다. 일제 강점기의 독립운동가로서, 이념 갈등이 심각했던 해방

* 이 논문은 한국동양정치사상학회 주최로 개최된 대한민국 건국 60주년기념 학술회의 (2008년 11월 26일)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충남대학교 사학과 교수 (e-mail: sccha@cnu.ac.kr)

공간의 정치지도자로서, 그리고 미국과 소련을 정점으로 하는 동서 양대 진영의 이념대결인 냉전이 고착·심화되어 갔던 건국 초기의 최고 국가 경영자인 대통령으로서, 이승만의 역할과 공헌은 실로 지대했기 때문이다. 초기 한국현대사의 전개과정은 해방과 군정, 그리고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진 그야말로 격동의 세월이었다. 1945년 8·15 해방에서 1960년 4·19 민주혁명으로 하야(下野)할 때까지 이승만은 민족의 지도자로서, 나아가 대통령으로서 ‘나라 세우기(건국)’와 ‘나라 지키기(보국)’를 담보할 수 있는 최선의 현실적인 방책을 확보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과 지모(智謀)를 최대한 발휘했다. 1960년대 이후 한국사회의 급속한 고도경제 성장을 통한 ‘나라 키우기(부국)’는 건국과 보국이 제공한 단단한 기반 위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역사적’ 인물, 이승만의 역할과 공헌에 관하여, 전문학계와 시민사회의 평가는 사뭇 다양하다.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로 높이 추앙하는가 하면, 한반도 분단의 ‘주역’으로 단정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승만이 고집과 독선, 그리고 자존심이 유달리 강했던 인물이었다는 점에는 대체로 동의한다.

이승만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자들은, 그를 “대한민국 건국에 절대적으로 공헌한 건국대통령”이며¹⁾, 해방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선각자’적 예지를 발휘한 뛰어난 정치지도자였음을 부각시키고 있으며²⁾, 동시에 ‘국민통합의 상징’이고, ‘건국사업의 주역’으로서, 건국이라는 지극히 어려운 사업을 오직 ‘필설(筆舌)의 힘’으로 달성시킨 ‘희세(稀世)의 위재(偉才)’이며, 미국에 ‘맞서 싸우면서’ 건국을 추진한 ‘핵심인물’이라고 강조한다.³⁾ 또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근대 국민 국가 건설’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훌륭하게 이행했으며, 대한민국의 생존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고,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가능하게 만

1) 유영익, “이승만, 건국대통령,” 『한국사 시민강좌』 제43집 (2008), 1.

2) 이정식, 『대한민국의 기원: 해방 전후 한반도 국제정세와 민족 지도자 4인의 정치적 궤적』 (서울: 일조각, 2006), 469.

3) 이인수, “우남 이승만,” 『한국현대인물론』 한국사학회 편 (서울: 을유문화사, 1987), 77-79; 유영익, “이승만의 삶과 꿈: 대통령이 되기까지” (서울: 중앙일보사, 1996), 210; 양동안, 『대한민국 건국사: 해방 3년의 정치사』 (서울: 현음사, 2001), 573.

든 기초를 다지는데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⁴⁾ 한 언론인은 이승만을 “누가 뭐래도 20세기 한국인 중에서도 최고 위인이자 영웅이며 동시에 대한민국을 건국한 아버지”라고 극찬하기도 한다.⁵⁾ 최근에는 이승만을 다각적인 시각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긍정적으로 재평가한 연구업적도 잇달아 출판되었다.⁶⁾

한편, 이승만의 행동과 역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학자들은, 그를 ‘근대적 민족의식’이 결여된 채 오로지 권력을 잡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인물”로서 ‘민족분열을 심화’시킨 장본인이었다고 규정하기도 하며⁷⁾, 혹은 그를 “외세의 국가이익 추구에 편승하여 이 나라[한국]을 분단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라고 지적하면서, 그의 반통일 분단노선은 궁극적으로 한국전쟁이라는 ‘민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하게 만든 중요한 원인이었고, 따라서 오늘날 분단국가로서 한 민족이 겪고 있는 고통도 “이승만의 지도노선에 일단의 책임이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한다.⁸⁾ 또 어떤 학자들은, 이승만은 통일국가의 수립을 적극적으로 방해한 주도적인 인물이며, “해방정국이 지닌 온갖 모순의 인격화(人格化) 그 자체”였다고 혹평하기도 하며⁹⁾, 나아가 그는 “분단국가 수립에서는 ‘건국의 아버지’일 수 있어도, 통일국가 수립에서는 ‘분단의 주역’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하는가 하면,¹⁰⁾ 그는 한국민 전체의 이익보다도 자신의 권력욕을 충족시키기 위해 ‘남쪽

4) 김일영, “통치자로서의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 유영익 편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125; 차상철, “이승만과 1950년대의 한미동맹,”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2』 박지향 외 엮음 (서울: 책세상, 2006), 291; 이덕주, 『한국현대사 비록』 (서울: 기파랑, 2007), 234.

5) 이한우, 『우남 이승만, 대한민국을 세우다』 (서울: 해냄, 2008), 5-6.

6) 유영익 편, 『이승만 대통령 재평가』와 유영익 편, 『이승만 연구: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참조.

7) 서중석, 『한국현대 민족운동 연구: 해방 후 민족국가 건설운동과 통일전선』 (서울: 역사비평사, 1991), 544-545, 604-605.

8) 송건호, 『한국현대 인물사론: 민족운동의 사상과 지도노선』 (서울: 한길사, 1984), 253-254, 235.

9) 박광주, “이승만의 집권과정과 정치적 성격,”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3』 (서울: 동아일보사, 1990), 426-428.

10) 정해구, “분단과 이승만: 1945-1948,” 『역사비평』 제32호 (1996년 봄호), 285.

대통령'을 선택했다"고 비난한다.¹¹⁾

이렇듯, 이승만의 역할과 공헌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매우 다양하다. 이승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들도 과장된 측면이 있겠지만, 부정적인 평가들은 인색하거나, 지나치게 가혹한 측면이 있다. 이는 이승만에 대한 공평한 대우(待遇)가 아닐 것이다. 허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따라서 이승만도 예외가 아니다. 90년에 걸친 이승만의 파란만장했던 인생 여정에도 술한 허물이 있었다. 특히, 대통령 이승만은 12년에 걸친 장기집권을 통한 권위주의적 독재정치로 많은 과오를 범함으로서,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지연시킨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이승만이 남긴 탁월한 업적을 폄하하거나 경시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이승만의 허물을 의도적으로 덮거나, 희석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을 지나치게 확대·과장하는 것도 그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역사적' 인물 이승만의 공(功)과 과(過)를 그가 처했던 특수한 상황과 시대적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차분하게 따져본 연후에야, 비로소 그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인 1970년대 초, 저명한 언론인이자, 동시에 존경받는 역사가였던 천관우(千寬宇) 선생은 역사적 인물의 평가 기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적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인물이 많지 않은 형편에서, 어떤 인물에 대한 극단적인 평가는 피했으면 좋겠어요. 한 인물에 대해서 조그만 흠이라도 찾아서 부정적인 결론을 내리기로 말하면, 성하게 남아날 사람이 우리 역사상에 몇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되도록 이면 좋은 점을 발견하는 아량과 관용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총결산해서 플러스 편이 크면 우선 긍정적으로 평가해 놓고, 그 테두리 안에서 흠을 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도 그저 깎아 내려서 인물들을 죽이는 풍조가 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¹²⁾

11) 이기형, “여운형과 이승만: 민족국가 건설의 두 가지 길,” 『한국현대사의 라이벌』 (서울: 역사비평사, 1992), 113.

12) 천관우, 『한국사의 재발견』 (서울: 일조각, 1974), 73.

우리 모두가 경청할 만한 대목이다. 그의 지적이 지금도 여전히 적절하고, 유효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건국 60주년을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해방정국의 주역으로서 대한민국 건국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이승만의 정치적 신념과 역할 그리고 공헌을 냉정하게 검토하여, 새롭게 재조명하는 일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으로 믿는다.

II. 한반도 국제신탁 통치안

제2차 세계대전 동안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와 트루먼(Harry S. Truman) 행정부는 한국의 독립은 전쟁이 종식된 후, 일정기간 미국, 소련, 영국 그리고 중국 등 4개국에 의한 국제신탁통치를 받은 다음에야 비로소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다.¹³⁾ 미국이 먼저 제의하고, 소련과 영국 그리고 중국이 동의한 한반도 신탁통치안은 기본적으로 한국민의 자치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는 잘못된 인식에 근거하고 있었다.¹⁴⁾ 그러나 한국의 지도자들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한반도 신탁통치안’은 한국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갈등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다.

일본이 항복한 직후, 미국과 소련은 한반도를 분할 점령하고, 각각 군정을 실시했다. 연이어 터져 나온 한반도 신탁통치안을 둘러싸고 벌어진 치열한 이념 논쟁과 갈등은 미·소의 관계악화, 트루먼 행정부 내부에서 국무부와 국방부의 정책상의 견해 대립과 불화, 그리고 한국문제의 해결 방안에 관하여 서울의 미군정 당국과 워싱턴의 본국정부 사이에 현저한 시각 차이를 초래했다. 그러나 신탁통치안으로 인한 최대의 피해자는 후일의 역사가 증명하듯이, 물론 한국민이었다.

13) 차상철, 『해방 전후 미국의 한반도정책』 (서울: 지식산업사, 1991), 제2장 “루스벨트 행정부와 한국신탁통치안” 참조.

14) 일본제국주의의 ‘한반도 식민지화’의 인정으로부터 ‘한반도 국제신탁 통치안’의 제의에 이르기까지 시오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와 프랭클린 루스벨트 등 미국의 지도자들의 부정적인 한국인식은 곧 한국의 자치와 독립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을 의미했다. 차상철, “한국의 독립에 관한 미국의 인식과 정책,” 『북미학연구』 제9호 (2000), 1-20 참조.

신탁통치안은 한반도의 분단결정, 미·소의 공동 점령과 군정 실시, 남한에서의 좌익과 우익의 이념적 갈등과 투쟁, 남한과 북한의 대립과 적대감의 고조, 이승만과 김일성(金日成)의 집권을 통한 두 개의 적대적인 정권의 등장, 나아가 비극적인 동족상잔을 초래한 한국전쟁의 발발 등, 한민족의 시련과 고통의 연속으로 이어진 파란만장했던 초기 한국현대사의 전개과정을 잉태시킨 근원적인 동인(動因)이었기 때문이다.

1945년 9월 8일 미점령군이 인천에 상륙했다. 미점령군 사령관이며, 군정의 최고 책임자인 하지(John Reed Hodge) 육군 중장이 한국에 도착하기 전에 받은 명령은, 한국에서의 ‘어떠한 사실상의(de facto) 정부’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¹⁵⁾ 트루먼 행정부의 기본적인 한국정책은 일정 기간 신탁통치를 실시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한국의 즉각적인 독립은 미국과 소련이 한국을 분할 점령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애당초부터 미국의 의중에도 없었다. 따라서 미국은 조선인민공화국(인공)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임정)도 합법적인 망명정부로 간주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다.

1945년 10월 16일, 이승만은 33년이라는 기나긴 미국에서의 망명생활을 마감하고, 마침내 그리던 조국으로 돌아왔다. 미국이 임정을 승인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중경(重慶) 임시정부의 주미외교위원부 위원장으로 활동해 왔던 이승만은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¹⁶⁾ 물론 김구(金九)를 비롯한 임정의 요인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조국의 강토가 분할되고, 또다시 외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슬픈 현실은 누구보다도 자존심이 강하고, 정치적 야망도 높았던 이승만의 건국 구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

이승만은 청년시절부터 미국 유학시절, 그리고 망명생활을 거치는 수 십 년

15) “Transcript of Orientation for Under Secretary of the Army General Draper and His Party by General John R. Hodge,” Seoul, 23 September 1947, RG 338 (National Archives of the United States, College Park, MD), Unit: USAFIK File, Box 1.

16) “Transcript of General Hodge’s Verbal Summary to General Albert C. Wedemeyer and His Staff,” Seoul, 27 August 1947, 4, RG 332, Entry: USAMGIK, Twenty-Fourth Corps, 1945-1949, Box 10 A.

동안 반러·반소(反蘇)주의적 태도를 견지했다.¹⁷⁾ 귀국할 무렵에는 사상적으로 이미 철저한 반공주의자로 무장된 이승만에게 미·소의 전략적 합작품인 한반도 신탁통치안은 비단 한국민의 자존심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입각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한국문제에 대한 소련의 개입과 간섭을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¹⁸⁾ 반면에, 이승만은 한반도에 자신의 건국이상이 반영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적극적인 지지와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미국에 대한 이승만의 인식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과 상황의 전개에 따라 변모되어 갔다. 이승만은 평생 동안 철저한 ‘친미’주의자로 일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관할 수도 없었다. 역사적 조건과 시대적 상황은 그로 하여금 맹목적인 친미주의자로 마냥 머물 수 없게 만들었다.

청년 이승만은 배재학당과 한성(漢城)감옥을 거치면서, 민주공화국 미국을 맹목적으로 ‘숭배’하게 되었다. 5년 반에 걸친 미국 유학생생활과 33년이라는 오랜 망명생활을 하는 동안 당대 최고의 미국 전문가로 인정받은 이승만은 ‘태프트-카츠라 밀약’과 일본의 한국합병, 그리고 “한반도의 양분(兩分)에서 보여준 미국의 배신행위”를 직접 목격했고, 또한 그것을 결코 잊지 않았다. 나아가 미국의 ‘배신’이 드러날 때마다 미국의 존재와 의미에 대한 그의 인식도 변화되어 갔던 것이다. 젊은 날의 맹목적인 ‘숭미(崇美)’주의자로서의 모습은 사라지고, 미국의 정치와 외교의 속성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철저한 ‘지미(知美)’주의자로 변신한 이승만 박사는 해방 직후 귀국할 무렵에는 이미 확고한 ‘연미(聯美)’·‘용미(用美)’주의자로 변신되어 있었다. 강대국에 의한 약소국의 희생이 다반사로 자행되는 냉혹한 국제정치의 현실에서, 이승만은 미국이 지닌 물리적 힘과 영향력의 위력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신생독립국가 대한민국의 생존과 안보를 확보하기 위하여 미국을 반드시 붙잡아야만 하는 ‘유일한’ 국가라고 믿었다. 대한민국의

17) 유영익, “우남 이승만의 개혁·건국사상,” 『아세아학보』 제20집 (1997년 12월), 38-43; 유영익, “이승만의 건국이상,” 『한국사 시민강좌』 제17집 (1995), 15-17.

18) 고정휴,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525.

건국과 보국을 위한 이승만의 노력과 실천은 철저한 ‘연미’와 ‘용미’에 기초한 지극히 현실적인 접근방안의 소산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¹⁹⁾

이승만은 오래전부터 독립될 한국의 모습에 대한 나름대로의 구체적인 건국 구상을 갖고 있었다. 그의 건국 이상은 청년시절부터 품었던 ‘개혁의 꿈의 연장’이었다. 그는 기독교 정신, 민족주의, 민주주의, 평등주의,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이념들을 추구했던 독립협회의 일원으로서, 대한제국의 개혁을 위해 과감하게 행동했을 당시 품었던 개화선각자로서의 꿈을 간직해 오고 있었다. 이승만이 간직했던 건국의 이상은, 한국에 ‘아시아의 모범적 예수교 국가,’ ‘동양의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 ‘평등한 사회,’ ‘반공의 보루’ 그리고 ‘문명 부강한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그는 한국을 개인의 자유와 평등이 최대한 보장되는 ‘민주주의적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는 염원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미국식 대통령 중심제가 건국될 새 나라의 정부 형태로 바람직하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다.²⁰⁾ 일찍이 한국동포들에게 독립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한성감옥에서, 순 한글로 집필한 『독립정신』(1904)에서, 청년 이승만은 민주공화국인 미국의 역사와 정치체도를 자세히 소개하면서, 모범적인 미국을 배워야 한다고 누차 강조했다.²¹⁾

한반도 국제신탁통치안과 이승만의 남한단독정부 수립안은 미군정 3년 동안 남한사회를 소용돌이치게 만들어, 심각한 이념적 갈등과 정치적 대결을 초래한 핵심적인 현안이었다. 한국문제를 비롯한 여러 현안들을 협의하기 위해 미국과 소련 그리고 영국의 외상들은 모스크바에서 회동하고, 1945년 12월 27일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한국조항에 관한 중요한 내용은, 미소 점령국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공위)가 한국임시정부와 협의한 후, 미국·소련·영국·중국이 최대 5년 동안 한국을 신탁통치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하는데 필요한 자료로서 이용될 수 있는 보고서를 제출한다는 것이었다. 또한 미국과 소련이 공동위원회의 건의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권’을 행사한다고 명시했다.²²⁾

19) 차상철, “이승만의 미국인식,” 『한국 인물사연구』 제9호 (2008년 3월), 281-303 참조.

20) 유영익, “우남 이승만의 개혁·건국사상,” 7-45; 유영익, “이승만의 건국이상,” 1-24 참조.

21) 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 연구소 편, 『이화장 소장 우남 이승만 문서: 동문편』 제1권 이승만 저작 1 (서울: 중앙일보사, 1998), 140-141.

모스크바 결정은 한국민에게 엄청난 충격과 우려를 안겨 주었고, 그 파장 또한 심각할 수밖에 없었다. 이승만과 김구는 신탁통치안을 맹렬히 비난했다. 이승만은 “탁치(託治)가 강요된다면 열국의 종속민족으로 우리에게 대한 생활여탈권을 타인에게 맡겨 놓는 격이 될 것”이며, 소련의 사주를 받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의 탁치론은 “영원히 우리 반도와 국민을 팔아먹으려는 가증스러운 행동”이라고 규탄하면서, “반탁(反託) 시위는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승만은 공산주의자들은 궁극적으로 한국을 ‘소련의 위성국’으로 만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고 경고했다.²³⁾ 김구도 “전 민족이 힘을 합하여” 신탁통치안을 분쇄할 것을 촉구했다.²⁴⁾

한반도 신탁통치안은 남한사회를 건잡을 수 없는 혼란의 도가니로 몰고 갔다. 좌익과 우익의 갈등과 투쟁도 날로 심화되었다. 1946년 3월 20일부터 5월 6일까지 미소공동위원회가 24회에 걸쳐 개최되었지만, 공위가 협의할 대상의 선정에 관해 미소가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런 성과도 없이 5월 8일 무기한 정회에 들어갔다. 한국은 한국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미소간의 첨예한 의견 대립으로 인한 희생물로 여전히 남게 되었다.

트루먼 행정부와 군정 당국은 공위가 결렬된 원인을 분석했다. 군정의 최고 책임자인 하지 장군은 한국민의 ‘유일하고도 공통된 생각’은 독립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신탁통치의 실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미국정부는 한국민에게 신탁통치를 강요할 의사가 있음을 시사하는 행위를 공개적으로 표명하지 말 것을 국무부에 긴급히 건의했다. 또한, 하지는 한국에 임시정부가 수립된 후, 미소의 점령군은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 안으로” 동시에 철수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동시 철군이 늦어도 1947년 1월 1일 안으로 완전히 이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하지는 그 길만이 한국에서 미국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무부는 미국의 기본적인

22)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FRUS)*, 1945, vol. 6: *The British Commonwealth, the Far East* (Washington: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1150-1151.

23) 우남실록편찬회, 『우남실록(1945-1948)』 (서울: 열화당, 1976), 140-41; 『동아일보』 (1946년 1월 2일).

24) 『동아일보』 (1945년 12월 30일).

인 정책은 여전히 모스크바 결정의 이행이라고 강조했다.²⁵⁾

국무부는 6월 초에 채택된 한국문제에 관한 새로운 정책지침에서, 미국의 정책에 대한 한국민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소련과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여건을 넓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극우파인 이승만과 김구를 잠정적으로 정계에서 은퇴시킬 것을 권고했다. 사실 전에도 국무부는 임시정부의 수립에 좌우익의 ‘비협조적인 극단주의자들’이 참여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것을 여러 차례 하지에게 지시한 적이 있었다.²⁶⁾ 극좌뿐만 아니라 극우도 한국에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하는데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 하지 장군도 국무부의 지시에 따라, 온건한 중도세력이 중심이 된 정치적 통합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김규식(金奎植)과 여운형(呂運亨)이 중심으로 추진된 좌우합작운동은 하지의 적극적인 후원에도 불구하고, 극좌와 극우세력의 격렬한 반대와 당시 가장 중요한 정치적 현안이었던 ‘신탁통치’ 문제에 대한 좌우합작추진위원회의 태도가 불투명하고, 관망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즉각적인 독립을 열망하는 대다수 일반 대중의 폭넓은 지지를 얻는데 실패하고 말았다.²⁷⁾

1947년으로 접어들면서, 트루먼 행정부는 하지를 비롯한 군정의 건의와 군정 초기부터 일관되게 남한주둔 미점령군의 조기 철수를 강력하게 주장해온 육군부의 견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은 소련과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에 민주적인 통일정부를 수립하겠다는 지금까지의 정책을 점진적으로 포기하고, 한국문제

25) Hodge, Langdon, Thayer to War Dept. for State Dept., 10 May 1946, RG 218, Geographic File: 1946-1947, Box 129; Williams to Borton, 21 May 1946, RG 59, Main File, Box 3827 A; Hodge to War Dept., 27 April 1946, RG 218, Geographic File, Box 129.

26) John H. Hilldring to Occupation Division, War Dept., [Annex: Policy for Korea]. 6 June 1946, *FRUS*, 1946, vol. 8, 692-699; Williams to Borton, 21 May 1946, RG 59, Main File, Box 3828 A; “Proposed Message to MacArthur Drafted in the Department of State,” [28 February 1946], *FRUS*, 1946, vol. 8. *The Far East*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 645-46; Byrnes to Langdon, 16 April 1946, *ibid.*, 660-661.

27) “Report on the Occupation Area of South Korea since the Termination of Hostilities: Part I Political,” by Gen. John R. Hodge to the Secretary of the Army, 27 September 1947, 16-17, 30, RG 319, Entry 154, Box 21; 양호민, 『38선에서 휴전선으로』 (서울: 생각의 나무, 2004), 243-251.

를 국제연합에 이양하여, 한국문제를 국제연합의 ‘문제’로 만들어, 남한으로부터 ‘명예롭게(gracefully)’ 철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금까지 좌우익 사이의 이념적, 정치적 갈등과 투쟁의 근본 요인이었던 ‘한반도 신탁통치 안’을 마침내 미국이 현실적으로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III. 남한 단독정부 수립론

미소공동위원회가 무기한 정회로 들어가고, 좌우합작운동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직전인 1946년 6월 3일 이승만은 정읍(井邑)에서 행한 연설에서, 남한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구상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이제 우리는 무기 휴회된 [미소]공위가 재개될 기색도 보이지 않으며 통일정부를 고대하나 여의케 되지 않으니 우리는 남방(南方)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조직하여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공론에 호소하여야 될 것이니 여러분도 결심하여야 될 것이다.²⁸⁾

‘정읍 발언’ 직후 이승만은 우익진영의 통합조직인 대한독립촉성국민회와 민족통일총본부의 총재직을 맡고, 미군정의 전폭적인 후원 아래 진행된 좌우합작운동에 대항하면서, 자신의 정치적 구상인 단독정부 수립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갔다.²⁹⁾ 이승만의 ‘단독정부론’은 혼미한 해방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기 위해 그가 선택한 고도의 정치적 승부수였다는 점도 물론 고려해야 되겠지만, 소련의 통치 아래에서 북한의 공산화가 가속화되어 가는 엄연한 현실에서, 소련과의 협력을 통해 신탁통치를 실시한 후, 통일정부를 수립한다는

28) 『서울신문』 (1946년 6월 4일), 국사편찬위원회 편, 『자료 대한민국사 2』 (서울: 탐구당, 1969); 『우남실록 (1945-1948)』, 158.

29) 이승만이 ‘단독정부론’을 제기한 구체적인 배경과 전개과정에 대해서는, 양동안, 『대한민국 건국사』 제11장 “이승만의 독자적 정부 수립 추진”과 이정식, 『대한민국의 기원』 제11장 “이승만의 단독정부론 제기와 그 전개” 참조.

미국의 정책은 결국 한반도 전체의 공산화를 필연적으로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우선 남한지역만이라도 민주적인 반공정부의 수립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그의 현실주의적인 국제정치적 감각과 인식의 소산이었다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철저한 반공주의자 이승만에게 있어서, ‘통일 민족국가 건설론’은 민족적 당위론이기는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관념적이고, 이상주의적인 구호에 불과했다.

단독정부의 수립을 위한 이승만의 주장과 노력을 근거로, 그를 한반도의 분단 고착과 민족분열의 ‘주범’으로 단정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도 정확하게 부합되지 않는다. 소련이 해체된 후인 1993년 2월 말, 군정시기 뿐만 아니라 한국현대사의 전개과정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스탈린(Joseph V. Stalin)의 지령이 담긴 문건이 발견되어 언론에 공개되었다.

소련군이 북한을 점령한 직후인 1945년 9월 20일 스탈린은 연해주(沿海州) 군관구(軍管區)와 제25군 군사평의회에 보낸 전문에서, “북조선에 반일적(反日的)인 민주주의 정당조직의 광범한 연합(블록)을 기초로 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권을 수립할 것”을 명령했다. 스탈린은 북한지역에 단독정부를 수립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연해주 군관구 사령관이 스탈린의 지령을 북한지역 점령군 사령관인 치스티아코프(Ivan M. Chistiakov) 대장에게 전달한 시점은 10월 초로 추정된다. 소련군정은 10월에 조선공산당 북조선분국(北朝鮮分局)과 북조선 5도행정국을 설립했고, 곧이어 1946년 2월 초 행정권과 입법권을 가진, 사실상의 단독정부나 다름없는 ‘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를 창설했다. 이 모두는 이승만이 ‘단독정부론’을 제기하기 이전의 일이었다. 스탈린의 명령은 한반도의 분단을 고착시키고, 나아가 남북한의 통합과 한민족의 통일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했던 것이다. 이렇듯, 스탈린이 북한에 이미 단독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한 이상, 소련의 협조를 통한 남북한의 통합과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미국의 정책과 노력은 현실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게 되었다.³⁰⁾

국무부와 미군정 당국은 이승만의 ‘단독정부론’을 당연히 용납하지 않았다.

30) 이정식, 『대한민국의 기원』, 178-179, 202-205. 1946년 8월 15일 김일성(金日成)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를 “전체 인민의 의사와 이익을 대표하는 [북조선의] 중앙주권기관”이라고 말했다. 양호민, 『38선에서 휴전선으로』, 168.

군정은 이승만을 제거하기 위해 좌우합작운동을 적극 추진했다. 이승만과 하지의 관계도 상호불신과 증오의 관계로 더욱 악화되어 갔다. 이승만은 군정의 기피 인물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좌우합작운동의 중심권에서 밀려나, 정치적 침묵을 강요받게 되었다. 이승만은 ‘신탁통치’의 포기과 ‘단독정부 수립’이라는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고, 동시에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국내의 정치적 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하여, 1946년 12월 초 미국을 방문했고, 4개월 반 동안 체류했다.

이승만은 미국과 소련의 협상을 통한 통일정부의 수립은 전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북한에는 ‘사실상의 정부’가 이미 수립되었기 때문에 “남한도 그와 같이 되어야한다”고 계속 역설했다.³¹⁾ 1947년 1월 27일 이승만은 측근인 올리버(Robert T. Oliver)교수를 통하여, ‘한국문제의 해결방안’이라는 자신의 구상을 담은 문건을 국무부에 전달했다. 6개항으로 구성된 이 문건에서, 이승만은 남한에 과도정부를 수립하고, 그 과도정부가 양분된 한국이 재통일될 때까지 국정을 수행하며, 나아가 한반도의 점령과 다른 중요한 현안들에 관하여 미국과 소련을 상대로 직접 협상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소의 점령군이 동시에 철수할 때까지 미군은 남한에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만은 자신의 해결방안에 대한 국무부의 견해를 전달받고 싶어 했지만, 빈센트(John C. Vincent) 극동국장은 올리버를 통해 그와 같은 기대를 포기하라고 말했다.³²⁾ 국무부는 소련과의 협력을 통한 한국문제의 해결이라는 기존의 기본 방침을 고수했기 때문에 이승만의 제의를 묵살했을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반응도 일체 보이지 않았다. 미국이 기피인물로 간주하고 있는 이승만에게 공식적인 반응을 보여주는 것은, 결과적으로 남한에서의 그의 정치적 위상만을 높여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1947년에 들어서면서 미국의 한국정책은 수정되기 시작했다. 트루먼 행정부는 군정의 최고 책임자인 동시에 남한주둔 미점령군 사령관인 하지 장군과 육군부의 강력한 조기 철군 주장을 수용하여, 소련과의 협력을 통한 민주적인 통일정부

31) 『우남실록(1945-1948)』, 191.

32) Vincent to Hilldring, 27 January 1947, *FRUS*, 1947, vol. 6. *The Far East*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2), 603-605.

의 수립이라는 기존의 정책을 점진적으로 철회하고, 한국문제를 ‘국제연합의 문제’로 만들어, 남한에서 ‘명예롭게’ 철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는 마침내 미국이 ‘한반도 신탁통치안’을 현실적으로 포기함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미국의 포기 결정은 한반도의 군사전략적 가치를 인정하지 않았던 육군부를 포함한 군부의 일관된 주장을 결국 수용한 것이었으며, 나아가 궁극적으로 한반도 포기를 염두에 둔 정책 결정이기도 했다.

3월 12일 트루먼 대통령은 소련의 사주를 받는 공산주의 세력의 팽창을 적극적으로 봉쇄하겠다는 미국의 단호한 의지를 천명한 ‘트루먼 독트린’을 선포했다. 그러나 육군부의 입장은 ‘트루먼 독트린’이 한국에까지 확대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패터슨(Robert P. Patterson) 육군장관은 한국문제를 국제연합에 이양하거나, 아니면 남한에 단독정부를 수립하는 것이 미국이 한국에서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대안(代案)이라고 주장했다.³³⁾ 군정이 시작된 이래, 군부의 확고하고도, 일관된 주장은 한국으로부터 ‘가능한 빨리’ 철수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트루먼 독트린’이 선포된 직후, 이승만은 트루먼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남한의 군정당국이 트루먼의 정책을 따르고, 그리고 민족주의자들과 공산주의자들 사이의 연합과 협력을 추구하는 남한 군정당국이 그 노력을 포기하라는 지시”를 내려줄 것을 요청하면서, “남한에 ‘과도적 독립정부(an interim independent government)’를 즉각 수립하는 것이 공산주의의 팽창을 막는 ‘방파제’가 될 것이며, 나아가 남북한의 통일을 실현시켜줄 것”이라고 주장했다.³⁴⁾ 물론 백악관과 국무부는 이승만의 요구를 묵살하고, 답신도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트루먼 독트린’의 선포로 인하여 정치적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판단한 이승만은 귀국 직후인 4월 27일 서울운동장에서 개최된 귀국환영대회에서, 자신의 방미 외교의 성과를 과시하면서, “현재는 미국정책이 공산주의와의 합작을 단념했다”고 천명했다.³⁵⁾ 마침내 7월 3일 이승만은 남한단독정부의 수립을 위한 자신의 구상을 실천에 옮길 것이라고 말하면서, 하지 사령관과의 결별을 공개적

33) Patterson to Acheson, 4 April 1947, *FRUS*, 1947, vol. 6, 625-628.

34) Syngman Rhee to Truman, 13 March 1947, *FRUS*, 1947, vol. 6, 620.

35) 『우남실록(1945-1948)』, 203-204.

으로 선언했다.³⁶⁾ 미국의 한국정책을 현지에서 집행하는 임무를 맡은 하지 장군과 남한 우익진영의 최고 지도자인 이승만은 정치적 화해와 신뢰회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한마디로 ‘견원지간’의 관계가 되고 말았다. 이후 이승만은 한국의 조기 독립을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라고 간주해온 하지를 ‘제거’하겠다는 자신의 결의를 공개적으로 누누이 표명했다.³⁷⁾

1947년 7월 하순 마침내 미국은 한반도에서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는 방책으로서 한국문제를 유엔에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애치슨(Dean G. Acheson) 국무장관이 한국전쟁이 종식된 직후 솔직하게 고백한대로, “만약 곤경에 처할 경우 빠져나오기 위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산된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³⁸⁾ 9월 말 국무부와 국방부는 한반도에서 “명예롭게, 그러면서도 가능한 신속하게” 철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일치할 보게 되었다. 국제연합이 한국문제를 의제로 채택한 직후인 9월 26일 소련은 1948년 초까지 미소 양국의 점령군을 동시에 철수하자고 제안했다. 마셜(George C. Marshall) 국무장관은 소련의 제안이 다행하게도 미국이 “체면을 잃지 않고, 한국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고 간주했다.³⁹⁾

한편, 하지는 유엔에서 한국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면, 미국은 ‘즉시’ 남한만의 총선거를 실시하여 가능한 가장 빠른 시일 안으로 ‘남한단독정부(a Korean Government in South Korea)’의 수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본국정부에 건의했다. 11월 중순 국무부는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한국에서 총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만반이 준비를 마련하라고 군정당국에 지시했다. 미국은 소련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북한방문을 불허할 것이라는 전제 아래, 남한만의 총선거 실시를 결정해 놓고 있었다.⁴⁰⁾ 트루먼 행정부의 이러한 사전 결정은 미군 철수 이후

36) Hodge to Marshall for Hilldring, 7 July 1947, *FRUS*, 1947, vol. 6, 691-692; 『조선일보』 (1947년 7월 4일), 『자료 대한민국사 5』.

37) Jacobs to Butterworth and Penfield, 13 January 1948, RG 59, Main File, Box 7125.

38) Dean Acheson Papers, “Princeton Seminars,” 13-14 February 1954, Harry S. Truman Library, Independence, MO; John J. Muccio, Oral History, 27 December 1973, 13-14, Truman Library.

39) Walter Millis, ed., *The Forrestal Diaries* (New York: Viking Press, 1951), 321.

40) Hodge to Department of the Army for JCS, [3?] November 1947, *FRUS*, 1947, vol. 6, 853;

를 대비한 구체적인 방침도 없이, 가능한 빨리 한국을 떠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었다. 또한 미군 철수 이후에 어떠한 남한정부도 독립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미국의 판단이 군정 종식 이후의 남한정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을 불필요하게 만들었다.⁴¹⁾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와 중앙정보국(CIA)은 곧 수립될 남한정부의 생존과 안보가 매우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했다. 1948년 4월 2일자로 된 한국에 관한 정책지침서(NSC 8)에서, NSC는 미국은 “북한이나 혹은 다른 국가에 의한 명백한 침략 행위를 제외한 어떠한 공격에 대해서도 남한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해줄 수 있는 수단”으로 남한경비대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그러나 NSC 8은, 만약 강력한 북한군의 공격을 받을 경우, 남한정부는 자력으로 독립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던 CIA의 분석과 견해를 분명하게 수용했다. 따라서 NSC 8은, 한국 내에 있는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 취해진 어떠한 행동도 미국에게 ‘개전(開戰)의 이유(casus belli)’가 되는 사건으로 간주되는 일이 없도록 미국은 한국 사태에 ‘너무 깊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적시했다. 4월 8일 트루먼 대통령은 NSC 8을 승인했다.⁴²⁾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국회는 헌법을 제정하고, 7월 20일 초대 대통령으로 이승만을 선출했다. 그리고 8월 15일, 3년에 걸친 군정이 마침내 종식됨과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신봉하는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수립되었다. 그러나 이 신생독립국가의 생존 가

Hodge to Marshall, 22 February 1948, *FRUS*, 1948, vol. 6. *The Far East and Australasia* (Washington: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74), 1127.

41) Roswell H. Whitman to Bunce, 10 February 1948, RG 59, Confidential File, Box 125.

42) “Report by the National Security Council on the Position of the United States with Respect to Korea,” 2 April 1948, *FRUS*, 1948, vol. 6, 1164-1169; “Review of the World Situation,” (CIA 5 and CIA 3-48), 12 February 1948, 10 March 1948, RG 319, Intelligence Library(‘P’) File, Box 20. 한국문제가 유엔에 상정된 직후인 1947년 11월 중순 CIA는, 미점령군의 철수는 북한의 침략을 통하여 한반도 전체가 궁극적으로 소련의 지배하에 들어가게 만들 것이라고 분석했다. “Review of the World Situation as It Relates to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CIA 2), 7, 14 November 1947, RG 319, Intelligence Library (‘P’) File, Box 20; “Implementation of Soviet Objectives in Korea” (ORE 62), 6, 18 November 1947, *ibid.*, Box 22.

능성에 대한 미국의 회의적인 전망 속에서 대한민국은 출범하고 있었다. 곧이어 9월 9일 북한의 최고인민회의도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했다. 이념이 서로 다른 적대적인 두 개 정부의 동시 출현은 한반도의 장래가 결코 순탄할 수 없음을 예고하는 것이었다.

IV. 맺음말

미국의 한국(점령)정책은 궁극적으로 실패했다. 가장 중요하고도,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이 앞장서서 제안하고, 추진했던 ‘한반도 신탁통치안’이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다. 1948년 2월 마셜(George C. Marshall) 국무장관도 자신의 보좌관에게, “우리는 우리가 수행할 수 없는 정책[한반도 신탁통치안]을 고수해 왔다는 사실을 우리 자신이 발견하게 된다”고 솔직하게 고백하기도 했다.⁴³⁾ 미국의 ‘신탁통치안’ 포기는 한국문제의 유엔이양과 미점령군의 철수 결정으로 이어졌고, 이는 결국 ‘한반도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남한단독정부 수립론’은 소련에 의해 북한의 공산화가 가속화되어가고, 동시에 한반도에서 냉전구도가 확연히 정착되고 있다는 이승만의 냉철한 국제정치적 인식과 판단에서 구상되고, 추진되었다. 이승만은 자신의 ‘단독정부론’이 적어도 남한만이라도 자주독립과 자유민주주의를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최선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트루먼 행정부의 ‘한반도 신탁통치안’ 포기 결정은 결국 이승만의 ‘단독정부론’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촉매로 작동했다. 이승만은 미국의 한국정책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좌지우지할 능력과 영향력은 물론 없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한국정책은 이승만의 희망과 의지와는 거의 상관없이 논의·결정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정치적 상황 전개는 트루먼 행정부로 하여금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론’을 결과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승만의 노선을 수

43) Marshall to Mitchell, 25 February 1948, RG 59, Main File, Box 7125. 미셸은 유엔 한국임시위원단과 함께 일하기 위해 1948년 1월 19일 한국에 파견되었다.

용하는 것 이외에 다른 마땅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승만이 미국을 주도한 격이었다.”⁴⁴⁾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에 대한 역사가의 평가는 그가 살고 있는 ‘현재’를 반영하기 마련이다.⁴⁵⁾ 동서 양대 진영의 치열한 이념대결로 인해 냉전이 심화되어 갔던 해방공간에서, 철저한 현실주의자인 동시에 철저한 용미주의자였던 이승만의 단정노선을 냉전의 세계사적 전개과정과 냉전이 종식된 오늘의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단정노선이 우익진영 전체의 통일된 의견으로 수렴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는 점에서, 비록 최선은 아닐지 몰라도 차선(次善)의 선택이었다고 평가해도 좋을 것이다.⁴⁶⁾ 아무튼,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새로운 국가인 대한민국을 창건하기 위한 역사적 과업에서, ‘유달리 영리한(remarkably astute)’ 정치가였다고 평가받았던 이승만은⁴⁷⁾ ‘연출’과 ‘주연(主演)’의 역할을, 그리고 미국은 ‘조연(助演)’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접수: 2009. 3. 10, 심사(1차): 2009. 4. 12, 심사(3차): 2009. 5. 8>

44) 이정식, 『대한민국의 기원』, 458.

45) John Lewis Gaddis, *The Landscape of History: How Historians Map the Pas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강규형 옮김, 『역사의 풍경: 역사가는 과거를 어떻게 그리는가』 (서울: 에코 리브르, 2004), 189.

46) 김일영, 『건국과 부국: 현대한국정치사 강의』 (서울: 생각의 나무, 2004), 78.

47) 건국 직후 미국의 CIA가 작성한 ‘대한민국의 생존에 관한 전망’이라는 보고서는, 이승만을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이승만은 한국의 최고 통치자가 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한국의 독립을 위해 일생을 바쳐왔다. … 그는 한국민의 마음속에 반공주의의 상징이 되었다. … 결론적으로 이승만은 유달리 영리한 정치가임을 스스로 증명해 냈다.” CIA 44-48: “Prospects for Survival of the Republic of Korea,” 28 October 1948, RG 319, Entry 154, Box 154. 미국의 저명한 외교사학자인 번스타인 교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과정에서 보여준 이승만의 역할은, 체스(chess)판의 단순한 ‘졸(卒)’이 아니라 ‘성장(城將)격의 졸’이었다고 평가했다. Barton J. Bernstein, “Syngman Rhee: The Pawn as Rook: The Struggle to end the Korean War,”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10 (January-March 1978), 38-47 참조.

초록

이승만과 미국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수립

차 상 철

미국의 한국점령정책은 궁극적으로 실패했다.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미국의 ‘한반도 신탁통치안’이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트루먼 행정부의 ‘신탁통치안’ 포기는 한국문제의 유엔 이양과 미점령군의 철수결정으로 이어졌고, 이는 결국 한반도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이승만의 ‘남한단독정부 수립론’은 소련에 의해 북한의 공산화가 가속화되어 가고, 동시에 한반도에서 냉전구도가 확연히 정착되고 있다는 그의 냉철한 국제 정치적 인식과 판단에서 구상되고, 추진되었다. 이승만은 자신의 ‘단독정부론’이 적어도 남한만이라도 자주독립과 자유민주주의를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최선책이라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트루먼 행정부의 ‘한반도 신탁통치안’ 포기 결정은 결국 이승만의 ‘단독정부론’이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촉매로 작동했다. 이승만은 미국의 한국정책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좌지우지할 능력과 영향력은 물론 없었다. 다시 말하면, 미국의 한국정책은 이승만의 희망과 의지와는 거의 상관없이 논의·결정되었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정치적 상황전개는 트루먼 행정부로 하여금 이승만의 ‘단독정부 수립론’을 결과적으로 수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이승만의 노선을 수용하는 것 이외에 다른 마땅한 현실적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이승만이 미국을 주도한 격이었다.”

동서 양대 진영의 치열한 이념대결로 인해 냉전이 심화되어 갔던 해방공간에서, 철저한 현실주의자인 동시에 철저한 용미주의자였던 이승만의 단정노선은 냉전의 세계사적 전개과정과 냉전이 종식된 오늘의 시점에서 생각해 보면, 비록 최선은 아닐지 몰라도 차선의 선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민주공화국을 표방

하는 새로운 국가인 대한미국을 창건하기 위한 역사적 과업에서, 이승만은 ‘연출’과 ‘주연’의 역할을, 그리고 미국은 ‘조연’의 역할을 담당했다고 말할 수 있다.

Abstract

Syngman Rhee, the United States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Sangchul Cha

The principal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and evaluate Syngman Rhee's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in 1948. American policy in Korea during the occupation period, 1945-1948, ultimately failed mainly because of the unworkable policy of the proposed Korean international trusteeship initiated by the Franklin D. Roosevelt administration. The Harry S. Truman administration's decision to abandon an international trusteeship for the Korean people in late 1947 led the United States to submit the protracted Korean question to the United Nations which provided an avenue for the withdrawal of the American occupation troops from the Korean peninsula. In retrospect, the proposed trusteeship for postwar Korea eventually contributed not only to the emergence of two separate, hostile regimes in the Korean peninsula but to the coming of the Korean War in 1950.

From June 1946, Rhee urged separate elections for establishing a provisional government in southern Korea alone. He strongly asserted that the establishment of "a separate government" would be the most realistic and desirable device to secure South Korea's independence and democracy.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circumstances in Korea forced the United States ultimately to accept Rhee's assertion because Washington had no other alternatives.

Syngman Rhee was not only a thorough realist who knew quite well the mercilessness of international politics but also a remarkably astute politician who tried his best to manipulate the United States to achieve his own goal. It is safe to say that his persistent

advocacy for the establishment of a separate government in southern Korea alone as soon as possible proved to be the most realistic prescription for the benefits of the Korean people in the long run. In short, Rhee, not the United States, played a leading role in the making of a new nation, the Republic of Korea, in 1948 when the Cold War in Asia already begun.

주제어(Keywords): 이승만(Syngman Rhee), 점령정책(occupation policy), 트루먼 독트린(the Truman doctrine), 한반도신탁통치안(the proposed Korean trusteeship), 남한단독정부수립론(the establishment of a separate government in southern Korea alone)

참고 문헌

- 연세대학교 현대한국학연구소 편. 『이화장 소장 우남 이승만 문서: 동문편』 서울: 중앙일보사, 1998.
- 우남실록편찬회. 『우남실록 (1945-1948)』 서울: 열화당, 1976.
- 국사편찬위원회 편. 『자료 대한민국사』 서울: 탐구당, 1969.
- 강규형 옮김. 『역사의 풍경: 역사가는 과거를 어떻게 그리는가』 서울: 에코 리브르, 2004.
- 고정휴. 『이승만과 한국독립운동』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4.
- 김일영. “통치자로서의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대통령 재평가』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 김일영. 『건국과 부국: 한국현대정치사 강의』 서울: 생각의 나무, 2004.
- 박광주. “이승만의 집권과정과 정치적 성격.” 『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3』 서울: 동아일보사, 1990.
- 서중석. 『한국현대 민족운동연구: 해방 후 민족국가 건설운동과 통일전선』 서울: 역사비평사, 1991.
- 송건호. 『한국현대 인물사론』 서울: 한길사, 1984.
- 양동안. 『대한민국 건국사: 해방3년의 정치사』 서울: 현음사, 2001.
- 양호민. 『38선에서 휴전선으로』 서울: 생각의 나무, 2004.
- 유영익. “이승만, 건국대통령.” 『한국사 시민강좌』 제43집 (2008).
- 유영익. 『이승만의 삶과 꿈: 대통령이 되기까지』 서울: 중앙일보사, 1996.
- 유영익. “우남 이승만의 개혁 · 건국사상.” 『아세아학보』 제20집 (1997).
- 유영익 편. 『이승만대통령 재평가』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6.
- 유영익 편. 『이승만 연구: 독립운동과 대한민국 건국』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0.
- 이기형. “여운형과 이승만: 민족국가 건설의 두 가지 길.” 『한국현대사의 라이벌』

- 서울: 역사비평사, 1992.
- 이덕주. 『한국현대사 비록』 서울: 기파랑, 2007.
- 이정식. 『대한민국의 기원』 서울: 일조각, 2006.
- 이한우. 『우남 이승만: 대한민국을 세우다』 서울: 해냄, 2008.
- 정해구. “분단과 이승만: 1945-1948.” 『역사비평』 제32호 (1996년 봄호).
- 차상철. 『해방 전후 미국의 한반도정책』 서울: 지식산업사, 1991.
- 차상철. “한국의 독립에 관한 미국의 인식과 정책.” 『북미주학연구』 제9호 (2000).
- 차상철. “이승만과 1950년대의 한미동맹.” 박지향 외편, 『해방전후사의 재인식 2』 서울: 책세상, 2006.
- 차상철. “이승만의 미국인식.” 『한국인물사 연구』 제9호 (2008).
- 천관우. 『한국사의 재발견』 서울: 일조각, 1974.
- National Archives of the United States, College Park, MD.
- Record Group 59, General Records of the Department of State, 1945-1949.
- Record Group 218, Records of the United States Joint Chiefs of Staff, 1942-1953.
- Record Group 319, Records of the Assistant Chief of Staff, G-2, Intelligence Library File (CIA) and the Department of State File, 1946-1951.
- Record Group 338, Records of the United States Army Field Commands, 1940-1952,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File and Lieutenant General John R. Hodge Official File, 1944-1948.
- Record Group 332, Records of the United States Theaters of War, World War II,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Twenty-Fourth Corps, 1945-1949.
- The Harry S. Truman Library, Independence, MO.
- Dean Acheson Papers.
- John J. Muccio Oral History.
- U. 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1945-1948*. Washington, D. C.: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69-1976.
- Bernstein, Barton J. “Syngman Rhee: The Pawn as Rook: The Struggle to end the Korean

War,” *Bulletin of Concerned Asian Scholars* 10 (January-March 1978): 38-47.

Millis, Walter, ed. *The Forrestal Diaries*. New York: Viking Press, 1951.